

삼십리 벚꽃길·역사 힐링여행...강진의 봄이 부른다

'2019 올해의 관광도시' 선정 강진의 봄축제

'2019 올해의 관광도시'로 선정된 강진이 다양한 봄축제를 통해 나들이 손님맞이 준비에 한창이다. 삼십리 벚꽃길이 절경을 이루는 '강진군동금곡사 벚꽃길 나들이' 축제부터 올해로 22회를 맞는 전라병영성축제까지 '남도 답사 1번지' 강진의 특성과 자랑거리를 담은 풍성한 봄축제를 소개한다.

■ 30·31일 '금곡사 벚꽃길 나들이 축제'

화사한 벚꽃 삼십리길 힐링 절로
봄꽃길 보물찾기·외갓집 체험 등 다채
계곡 입구 김삿갓 열녀사 시 눈길

■ 4월 19~21일 '전라병영성축제'

호국정신 느끼며 조선속으로 타임머신
병마절도사 입성식·난타공연 등 풍성
국악소녀 송소희·도립국악단 협연도

◇ '벚꽃명소' 금곡사...상춘객 맞이 행사 풍성

상춘객의 발길을 이끄는 강진의 대표 명소, 금곡사 벚꽃길이 조성되기 시작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27년 전이다. 1992년 강진군청 공무원들이 1인당 뱃나무 10그루씩 심은 것이 그 시작이었다. 벚꽃길의 길이만도 12km, 30리에 이른다. 일명 벚꽃 삼십리길이라 불리기도 하는 호남 제1의 벚꽃길이다.

벚꽃길 뿐만이 아니다. 안쪽에는 금곡사가 자리해 관람객에게 안식을 준다. 금곡사는 보은산 우두봉 자락 강진 군동면과 작천면을 오가는 까치내재 석문에 있는 고찰이다. 금곡사에는 보물 제 289호인 삼층석탑이 있다. 또 임진왜란 때 왜구를 격파한 강진 출신 김억추 장군이 마셨다는 전설이 깃든 약수는 가뭄에도 마르지 않고 물의 양이 일정하다. 금곡사 계곡 입구에 새겨진 방랑시인 김삿갓이 남긴 열 녀자의 짧은 시 또한 여행객들의 발걸음을 붙든다.

해마다 많은 관광객이 찾는 금곡사 벚꽃길을 중심으로 올해 또한 강진군에서 개최되는 상춘객 맞이 행사가 풍성하다. 강진군은 오는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 '이야기가 있는 벚꽃길 걷기'라는 주제로 강진군동 금곡사 벚꽃길 나들이 축제를 개최한다.

'강진군동 금곡사 벚꽃길 나들이' 축제는 군동면 금곡사 벚꽃 삼십리길의 수려한 경관을 배경으로 관광도시 강진의 인지도를 높이고 지역이미지 제고를 위해 개최된다.

특히 군은 이번 축제를 지역 주민 주도형 축제로 전환한다. 지역민의 활발한 참여를 통해 어린이와 가족 중심의 군민과 방문객이 어우러지는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도록 진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개막 축하 콘서트, 관광객과 함께하는 강진군동 벚꽃길 즉석 노래자랑 등 다양한 행사와 체험형 놀이 행사를 포함했다.

봄꽃길 보물찾기, 나만의 화전 부치기, 군동 외갓집 체험, 군동 댕장 만들기 체험 등 다양한 체험 행사가 진행된다. 봄꽃길 보물찾기 행사는 금곡사 일원에서 치러진다. 나만의 화전 부치기 시연 및 체험은 군동면 부녀회 주관으로 진행된다.

강진 군동 외갓집 체험은 현장 접수를 통해 투호, 제기차기, 새끼줄 놀이기, 율리 등이 등을 경험할 수 있다.



'남도답사 1번지' 강진의 봄은 축제로 피어난다. 지난해 '금곡사 벚꽃길나들이 축제'에 참가한 여성들이 벚꽃을 배경으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왼쪽). 오른쪽은 지난해 전라병영성축제 입성식 재현행사 장면.



전라병영성축제에 참가한 한 외국인이 무과대전 체험을 하고 있다.

부대행사로 가족과 연인이 함께하는 벚꽃길 느리게 걷기 행사가 진행된다. 행사장과 까치내재 구간에서 현장 접수를 통해 관광객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 강진의 3대축제 '전라병영성 축제' 4월 개막

강진군은 '2019년 올해의 관광도시' 선정을 계기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이 떨어지는 축제는 축소하고 내실 있고 차별화된 강진만의 축제를 선보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청자축제와 갈대축제, 전라병영성축제를 강진의 3대 축제로 정하고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3대 축제 중 전라병영성축제가 포문을 연다. '제22회 전라병영성축제'가 오는 4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강진군 병영면 일원에서 개최된다.

강진 전라병영성은 1417년에 초대 병마절도사 마천목 장군이 축조한 성으로 역사교육의 명소이자 대한민국 호국정신의 성지로 손꼽히는 강진의 대표 명소이다.

전라병영성 축제는 조선 왕조 478년간 전라도와 제주도를 포함한 53주 6진을 총괄한 육군 총지휘부였던 전라병영성(全羅兵營城)을 배경으로 열리는 축제이다. 전라병영성의 국가사적지(제397호) 승격을 기념하고, 선조들의 호국정신을 널리 알리고자 지난 1997년부터 매년 열고 있으며 올해로 22회째를 맞는다.

올해 전라병영성축제는 '조선 속으로 타임머신, 병영성으로 축제여행'을 주제로 진행된다. 전라병영성의 정신을 대한민국의 호국정신으로 승화시키고, 대·내외에 강진 병영을 알리고자 5개 분야 30개 단위행사로 다양한 체험 콘텐츠를 추진한다.

개막식은 오는 4월 19일 오후 4시 30분에 시작된다. 병마절도사 입성식 재현을 시작으로 조선병사 난타공연, 국악소녀 송소희와 도립국악단의 협연인 국악콘서트 등 독특한 퍼포먼스를 통해 전라병영성의 의의를 현대적으로 해석하며 지역 파워 브랜드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

체험행사는 병영성 축제장을 조선시대 분위기로 확대 조성해 과거의 병영체험을 진행한다. 전라병영성 성곽 순례, 조선시대 무기 전시 및 조선시대 화폐 사용, 율타기 공연, 병영기 만들기, 조선 병사 의복 체험, 활쏘기 체험인 '병영성을 사수하라', 말타기 체험인 '나도 마천목 장군!'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준비돼 있다.

군민과 관광객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전통 공연·놀이 프로그램 또한 강화한다.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축제장 내 관광객들의 참여를 유도해 군민과 관광객의 단합된 퍼포먼스를 연출할 차전놀이를 비롯 박희승 명인의 전통 율타기 공연 등으로 볼거리와 포토존을 제공한다.

또 조선병사 의복을 입고 조선시대 화폐인 상평통보를 병영성 내 축제장에서 현금으로 사용하는 등 조선시대 분위기를 재현하는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이와 함께 군민과 군인이 함께 참여하는 줄다리기, 병영 서바이벌 전투, 스마트 활영 대회 등 각종 경연대회의 대폭 확충으로 축제장의 흥겨운 분위기 조성과 군민 및 방문객들의 참여를 유도한다.

이승욱 강진군수는 "머무르는 관광지로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놀거리와 먹거리를 비롯한 체험과 숙박시설까지 종합적인 관광 자원 확충을 통해 체류형 관광의 기반을 다지고 있다"며 "역사와 문화, 강진의 아름다운 풍경과 다양한 즐길 거리와 함께하는 강진의 봄축제는 2019 올해의 관광도시로 선정된 강진의 매력을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어 줄 것이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강진·남철희 기자 choul@kwangju.co.kr

오토캠핑장에 여장 풀고 강진 즐기세요



출렁다리와 쥘트랙으로 이름난 기우도, 역사와 문화·예술에 대한 소중한 체험을 안겨줄 고려청자박물관과 한국민화뮤지엄까지.남도 답사 1번지 강진은 봄 나들이의 '보물창고'이다.

이를 맘 놓고 즐기고 하루 이틀 묵을 수 있는 오토캠핑장에 숙박하면 그야말로 가족이 함께하는 힐링의 봄 나들이가 완성된다.

국도 23호선을 따라 강진군 강진읍에서 마량항으로 방향을 잡고 가다 보면 대구면 일원 청자촌이 있다. 해마다 여름이면 강진청자축제가 열리는 곳이다.

이곳에 오토캠핑장이 있다. 여행객, 특히 가족들의 여가와 치유를 위해 맞춤형 곳이다.

캠핑장에는 숙박시설인 카라반과 케빈, 오토캠핑 사이트, 일반 야영 사이트, 공공편의시설인 공동 취사장, 샤워장, 화장실, 체육시설 등이 들어서 있다.

특히 6~7명까지 이용이 가능한 캠핑형 카라반 20대는 색다른 경험과 추억을 전해주는데 손색이 없다. 한 가족이 편안하게 봄 밤하늘의 정취를 누릴 수 있는 더할 나위 없는 공간이다.

이와 함께 텐트를 칠 수 있는 캠핑장은 3곳으로 모두 58개까지 들어설 수 있어 최근 인기 있는 가족단위 자연 속 캠핑의 최적지다.

청자촌 오토캠핑장 예약이나 이용 문의는 캠핑장(061-434-9939)으로 하면 된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

광한루 600년

남원의 봄

風引春香

바람결에 봄향이 나는구나

요천면 벚꽃 4월 초 / 제25회 지리산 바래봉 철쭉제 4월 중순~5월 중순 / 제89회 춘향제 5월 8일~12일

요천면 벚꽃모험스
지리산 바래봉 철쭉
사람의 향기 춘향제
광한루의 봄